



류현명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0여 년간 농어촌의 터전을 지켜왔다. 땀으로 일군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어촌의 인프라를 정비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섬 없이 달려왔다. 이는 우리 공사의 존재 이유이자 변함없는 사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농어업인의 신뢰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뢰의 첫걸음은 바로 '청렴'이며, 청렴의 중심은 '나부터 실천하는 솔선수범'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청렴은 곧 조직의 뿌리

솔선수범이 만드는 변화, 청렴은 나부터 시작된다

이며,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정직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이끄는 태도이다. 이러한 청렴 문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청렴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청렴한 자세를 지키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의 솔선수범은 구성원의 참여를 이끄는 동력이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청렴 문화의 확산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을 원칙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업무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 관련 외부 접촉은 단호히 차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이 정직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대의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사에서는 전 직원의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淸)은 바(로) 지(금부터)데이' 행사를 개최해 청렴서약식·청렴골든벨을 진행했으며, 윤리경영 실행력 제고를 위해 청렴 문구 공모 후 우수작을 활용한 청렴 계단을 조성해 직원들과 문구를 공유하고 다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선 '나부터' 실천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도 필수적이다. 직원 개개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에선 내부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전국 방방곡곡의 농어업인들을 만나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협업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의사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농어촌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튼튼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나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청렴은 나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앞장서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청렴을 증명할 때 조직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공사가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은 청렴이라는 뿌리 위에 자라야 하며, 그 뿌리를 내리는 첫걸음은 나부터 실천하는 솔선수범이다. 우리 공사가 농어업인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다. "나는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매 순간 청렴이라는 답을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한다.